



세계 최고 친환경 생산체제 가동

등·경유 탈황 제조시설 준공, 대규모 친환경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완료
 황 함량 10ppm 이하인 세계최고 수준의 친환경 제품 본격 생산



SK에너지가 지난 9월7일 울산CLX에서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에너지 제조시설 종합 준공식'을 갖고, 환경기준 강화에 선제 대응한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제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지난 2002년부터 휘발유 및 등·경유 등에 함유된 황 함량을 낮추기 위한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에 착수해, 2005년 초저유황 휘발유 제조시설(GDS : Gasoline Hydrodesulfurization Unit) 상업 가동, 초저유황 경유를 생산하는 제4/5 등·경유 탈황 제조시설(MDU : Middle Distillate Hydrodesulfurization Unit) 개조작업에 이어, 이번에 제6 등·경유 탈황 제조시설(No.6 MDU)을 완공함으로써 휘발유·경유 등 친환경 제품의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

SK에너지는 지난 2002년부터 휘발유 및 등·경유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는 SK에너지가 글로벌 유류제품 시장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친환경제품 생산 체제의 구축을 추진해 온 친환경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은 총 3천억원 규모로, SK에너지는 이번에 그린에너지 프로젝트를 완료함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10ppm 미만의 초저유황 경유제품 생산 (25만 배럴/일) 및 휘발유 탈황(3만5천 배럴/일) 제조시설을 갖추게 됐다.

SK에너지, 브라질 BMC-8 광구 본격생산 돌입



SK에너지는 최근 브라질 정부로부터 브라질 BMC-8 광구의 생산 License를 획득해 원유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동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5,600만 배럴로, 40% 지분을 보유한

SK에너지는 2,240만 배럴의 지분원유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9월 미국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데본에너지(Devon Energy)와 함께 광권을 취득해 탐사 및 개발을 추진한 이후 지난 7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브라질 BMC-8 광구는 리오 데 자네이루 동쪽 250km 해상에 위치한 광구로, 지난 2005년 7월 상업성 확인을 하고 지난해 초부터 하루 5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건설해 왔다. 양사는 이 광구에서 향후 7년간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SK에너지, 아스팔트 수출 천만톤 달성

SK에너지가 국내 최초로 아스팔트 수출 천만톤을 달성했다.

SK에너지는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W호텔에서 신현철 사장, 김명근 부사장, 중국 및 일본 고객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아스팔트 수출 천만톤 달성 행사'를 갖고, 아스팔트 수출 천만톤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SK에너지의 아스팔트 수출은 2004년 3월에 5백만톤을 넘어선 후 2005년 750만톤, 작년에 900만톤 등 매해 2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올해 8월말 1천만톤을 넘어섰다. 이는 4차선 도로를 만들 경우 12만여km에 달하는 양으로,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SK에너지, 중국 석탄사업 첫 진출

SK에너지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역과 제품이 다변화 되고 있다. SK에너지는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핑딩(平定) 탄광의 지분 20%를 인수해 중국 석탄사업에 첫 진출했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SK에너지는 중국 현지 자회사인 SK중국투자유한공사를 통해 중국 산시회능매업유한공사(山西匯能煤業有限公司)가 소유하고 있던 핑딩(平定) 탄광에 증자 형식으로 총 254억원을 투자, 탄광 지분 20%를 인수해 2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SK에너지, 스마트카드 결제 전국망 구축



“주유소에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SK에너지가 미래 ‘꿈의 카드 결제수단’으로 평가받고있는 스마트카드 결제시스템의 전국 망을 구축하고 첨단 디지털 주유소 시대를 열었다. SK에너지는 스마트카드 결제 시스템 가동으로 전국의 4,000여개 SK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유 금액 결제시 운전석에서도 터치방식(비접촉식)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복합 단말기 설치, 주유소에서의 근거리 통신망 이용, 판매시점관리(POS: Point of Sales Management) 시스템 보급 등 고객들의 편리성과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고 밝혔다.

SK에너지, 페루 지진 구호 성금 전달



SK에너지는 지난 8월23일 SK서린사옥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마르셀라 로페즈 브라보(Marcela Lopez Bravo) 주한페루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고,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페루지역 피해 복구 성금 30만달러를 전달했다. 페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15일 페루 리마 남쪽 지방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으로 인해 5백 여명이 사망하고 1천5백명이 부상당했으며 3만3천 여채의 가옥이 붕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SK에너지, 부산 반송동에 장학금 지원



SK에너지는 지난 8월21일 반송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 9월부터 향후 1년간 ‘SK 행복날개 장학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SK에너지 신현철 사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청 교육감, 김종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회장, 반송동 주민단체인 ‘희망 사다리운동본부’의 김정국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No.2 HOU 프로젝트 기계적 준공 완료 및 기념식



GS칼텍스는 미래 핵심동력 사업인 No.2 HOU(제2중질유분해 시설)를 조기 완공했다. 이 설비가 가동되어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성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는 No.2 HOU 프로젝트를 당초 계획보다 평균 73.4 일정도 앞당겨 기계적 준공을 완료, 10월말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No.2 HOU 프로젝트는 상세설계에서 기계적 준공에 이르기까지 총 23개월이 소요돼 전세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석유화학 건설공사의 평균 공사기간인 33개월을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허동수 회장은 "No.2 HOU 프로젝트는 사업기간, 투자비,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투철한 의지와 사명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주인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No.2 HOU 프로젝트는 총 투자비 1조 5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일산 15만 배럴 규모의 감압증류공정(VDU)과 일산 1만 6천 배럴의 윤환기유생산공정(LOP), 일산 300톤 규모의 황회수공정(SRU), 일산 5만 5천 배럴의 수첨탈황분해공정(HCR), 그리고 110MMSCFD 규모의 수소생산공정(HMP) 등 5개 주요 공정과 부대시설로 구성 되어 있다.

여수공장, 정유업계 최초로 무재해 600만인시 달성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7월 23일 24시를 기해 정유업계 최초로 무재해 600만인시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05년 5월 9일 0시부터 806일 동안 여수공장 내에서 하루 이상의 작업 손실을 일으키는 상해사고 또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직접 설비 손상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S칼텍스는 그동안 무재해 작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환경을 경영실적의 주요 인자(KPI: Key Performance Index)로 설정하는 한편, 사고예방을 위한 노사합동안전활동, 무재해포상제도 운영, 소방경연대회, 안전환경경진대회, 안전마일리지제(Safety Mileage), IIF(무사고·무상해, Incident&Injury Free)등 안전환경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사고예방 활동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탁금 5억 추가 전달 및 개최지 발표 D-100 마케팅 행사 전개

GS칼텍스는 지난 7월 3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탁금 5억 원을 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현섭 여수시장을 비롯해 최오주 부

시장, 김광현 준비위원장, 이상을 집행위원장과 허진수 생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이에 앞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중앙유치위원회에 10억 원을, 준비위원회에 7천 800만 원을 기탁한바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8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전개한다.

GS칼텍스는 Kixx사이트(www.kixx.co.kr)에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응원메시지를 등록하는 회원 중에서 매주 1명씩 총 12명을 추첨해 프랑스 파리에서 응원단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KBCSD 회원간담회 개최



지난 8월 13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간담회가 개최 되었다. 이치범 前환경부장관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KBCSD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이치범 前장관은 환경부의 미래정책인 미래 환경전략 총괄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KBCSD회장인 허동수 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한 단계 발전한 환경부의 미래 환경전략 및 정책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동수 회장, 여수국가산단 대표기업 CEO 초청 간담회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8월 30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여수국가산단 대표기업 CEO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



회에는 오현섭 여수시장과 여수국가산단 대표기업 CEO 33명이 참석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여수국가산단 대표자들은 국제행사의 유치 성공 여부는 민간과 재계의 관심 및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기업 해외 영업망 등을 활용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제12회 GS칼텍스 장학금 수여식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9월 4일 여수공장 대강당에서 제12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성적이 우수한 여수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266명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은 여수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녀를 중 교육청에서 추천한 상위 4% 이내 성적우수자로, 중학생은 연간 25만 원, 고교생은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았다.

2007GS칼텍스-UNEP 여수 청정바다 캠페인 전개

GS칼텍스는 지난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07 GS칼텍스-UNEP 여수 청정바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여수 청정바다 캠페인에서는 여수지역 및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80명이 여수지역 해수욕장 및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여수시청에서 해양보호 거리 캠페인도 실시했다.

한편, GS칼텍스는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UNEP(유엔환경계획 한국 위원회)와 6년째 여수 청정바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S-OIL 투바이엠피 CEO, 고대 국제대학원 특별강연

S-OIL의 사미르 A. 투바이엠피 CEO는 지난 9월 17일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교수진과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투바이엠피 CEO는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win-win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기술적인 제약과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석유가 가장 효율적이고 영향력 있는 에너지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직접 개발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도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지만 엄청난 투자비용과 높은 실패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을 갖춘 유전 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투바이엠피 CEO는 결론적으로 석유자원의 지역적 편중 등 국제 에너지 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라며,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성공적인 경제 협력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S-OIL이 그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S-OIL은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9일 서울시 강서구 일대에서 지역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 나누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미르 A. 투바이엠피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80여명은 등촌4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고 직접 만든 송편과 한과, 햄 및 식용유세트,

비누세트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강서구 일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600여 세대에 전달했다.

회사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좀더 따뜻한 명절을 만들고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된 의미있는 나눔의 자리였다"며, "S-OIL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단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IL, 싱가포르에서 임원워크숍 개최

S-OIL은 지난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사미르 A. 투바이엠피 CEO를 비롯한 36명의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십 향상을 위한 '임원리더십워크숍'을 개최했다.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임원들은 글로벌 마켓 리더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회사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량과 리더십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S-OIL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을 다짐했다고 S-OIL은 밝혔다.

S-OIL, 아·태석유회의(APPEC) 전야제 리셉션 개최



S-OIL은 지난 9월 10일 싱가포르 플러튼 호텔에서 APPEC 회의에 참석한 석유메이저, 정유사, 트레이더 등 국제 석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리셉션을 개최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APPEC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유산업 관련 행사로 S-OIL은 이번 리셉션에 참가한 Saudi Aramco, Exxon Mobil, BP, Chevron 등 세계 각국의 석유산업 종사자들에게 첨단 고도화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문 정유회사, 매출액의 60% 이상을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질유 공급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위상과 비전을 소개했다.

S-OIL, 고효율을 위한 전용엔진오일 'SSU 10Plus' 출시

S-OIL은 지난 9월 6일 연식이 오래되어 이미 상당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을 위해 자체 생산하고 있는 고점도지수 최고급 윤활기유에 최신의 첨가제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고효율 전용 합성엔진오일 'SSU 10 Plus'를 출시했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기술리/디젤 차량용 합성엔진오일 'SSU 10 Plus'는 출고된 지 5년, 주행거리가 80,000km가 넘는 차량을 위한 합성엔진오일로서 우선 전국의 200여 「10년타기정비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S-OIL, 넥센타이어와 자동차 경정비사업 제휴

S-OIL은 지난 9월 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넥센타이어와 자동차 경정비사업 제휴 협약을 맺고 계열주요소에 넥센타이어 경정비 프랜차이즈인 「타이어앤피트(Tire & Fit)」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어앤피트」는 타이어 전문 기업인 넥센타이어가 올해 5월 선보인 타이어 전문 경정비점 브랜드로 타이어 및 각종 소모품 교환, 자동차 점검 등 다양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휴 협약을 통해 S-OIL은 계열주요소 경정비점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S-OIL 상반기 영업이익 7,094억, 직년 동기 대비 40% 증가

S-OIL은 지난 8월 2일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69,627억원, 영업이익 7,094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매출액은 정기보수의 영향으로 1.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석유시장은 경질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중질석유제품과 경질석유제품 간의 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중질유분해시설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질유 공급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S-OIL은 이러한 해외시장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4%가 증가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현대오일뱅크, 스페인 석유업체와 방향족 증설 양해각서 체결



현대오일뱅크와 스페인의 대표적인 석유그룹인 CEPSA가 지난 7월 10일 스페인 마드리드 CEPSA 본사에서 충남 대산공단 내에 파라자일렌(P-Xylene)과 벤젠(Benzen) 등 방향족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현대오일뱅크와 CEPSA는 충남 서산시 대죽리 일원 30만평에 약 11억불을 투자해 연간 110만 톤 규모의 방향족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투자 내용과 공장건설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동등지분 50%에 해당하는 합작법인

(Joint Venture Company)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기본 설계를 착수하고 투자 내용과 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날 조인식에는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과 카를로스 페레즈(Carlos Perez) CEPSA 회장 외에도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유상근 서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충남도와 서산시는, 양해각서에는 JVC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허용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양 자치단체는 JVC를 도와 방향족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설비시설 사용을 최대한 지원키로 합의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연산 36만 톤의 파라자일렌 생산능력이 116만 톤으로 늘어나며, 벤젠은 연산 11만 톤에서 41만 톤으로 증가해 총 157만 톤의 방향족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와 스페인의 대표적인 석유그룹인 CEPSA가 지난 7월 10일 스페인 마드리드 CEPSA 본사에서 충남 대산공단 내에 파라자일렌(P-Xylene)과 벤젠(Benzen) 등 방향족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현대오일뱅크와 CEPSA는 충남 서산시 대죽리 일원 30만평에 약 11억불을 투자해 연간 110만 톤 규모의 방향족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투자 내용과 공장건설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동등지분 50%에 해당하는 합작법인

(Joint Venture Company)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기본 설계를 착수하고 투자 내용과 공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상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는 50만 건이 넘는 주유소 서비스 고객 평가가 있었다. 이외에도 6천여 건의 서비스 체험 사례와 2만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고객이 응모한 감동 서비스 체험사례와 서비스 아이디어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하고, 또 고객들로부터 우수 서비스 주유소로 평가 받은 주유소 7곳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중순 경 포상을 실시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오일뱅크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반영하고, 더욱 향상된 주유소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감동서비스 체험사례' 공모 이벤트를 올 12월 31일까지 연장 실시하고 있다. 감동 받은 주유소 서비스를 사진 또는 수기로 응모하는 이번 이벤트는 매일 20명을 선정하여 개인별 10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으로, 오일뱅크 보너스카드 사이트(www.oilbankcard.com)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신고하자! 고객 50만 건 신고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6월 21일부터 8월말까지 70여일 동안 진행한 '신고하자 굿 서비스뱅크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국 2천 2백여 개 자사 계열 주유소와 충전소 방문 고객을 대

비전 2012 달성, 영업경쟁력 제고 위한 조직개편 단행

현대오일뱅크는 고도화 시설을 비롯해 방향족 생산시설 확충을 전담할 증설사업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현대오일뱅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전 2012 달성을 위한 증설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신설된 증설사업본부 산하에 설계부문과 공정부문, 사업관리팀, 브라보팀 등 4개 조직을 두었다. 또 기획팀을 재무부문 산하에 두고 증설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장의 안정적 가동과 공장 건설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생산지원팀을 생산지원부문으로 승격시키고, 산하에 노사협력팀과 업무팀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영업 효율성 증대 등 국내 영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영업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현대오일뱅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현대오일뱅크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적인 품질관리를 기하고자 전사 품질관리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티맥스소프트사와 품질관리 프로세스 표준 및 자동화 사업 계약을 맺고 지난 8월 9일 사업착수(Kick-off) 행사를 가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사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확산, 성과 측정 기반 고도화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업무프로세스관리(BPM)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생산부터 출하, 판매에 이르는 과정 중 품질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작업이 이뤄지며 2~3단계에는 전사적으로 BPM을 적용하고 고도화하게 된다.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홈플러스·2001아울렛 제휴

현대오일뱅크의 주유 상품권이 전국의 모든 홈플러스와 2001 아울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주유상품권 제휴처 확대에 나서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에 따라 오일뱅크 주유상품권 사용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 지금까지 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은 현대홈쇼핑, 아이파크몰, 그랜드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세이브존, 뉴코아, 김스클럽 등 전국 유명백화점과 대형할인점뿐만 아니라 현대호텔, 제주그랜드호텔, 현대성우리조트, 현대드림투어 등 호텔·여행업계, 이웃백스테이크 등 외식업체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우수기사 포상 실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8월 23일 서울사무소에서 '2007년 상반기 우수기사상 시상식'을 갖고 상반기 동안 현대오일뱅크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송한데 기여한 우수 기사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제품 수송 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 회사의 효율적인 수송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글로벌스 소속 원도희 씨(41세) 등 모두 13명의 우수 기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04년부터 제품 수송차량 우수기사를 선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기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국 물류 현장 관계자들과도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으로 시상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사 및 임원 간담회 개최



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K인천정유는 지난 8월 30일 최상훈대표를 포함하여 이사 및 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에서 지난 6월에 개원한 인등산 SUPEX Center에서 이사 및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사외이사의 SKMS 이해도 증진과 SK Brand 및 기업문화 공유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새롭게 개원한 SUPEX Center 시설 관람과 인등산 산행으로 '인재의 숲' 조성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상훈 대표는 "경영층이 먼저 SKMS의 실천, 확산, 발전에 솔선수범하고 이를 바탕

중동문화원 운영기금 지원

SK인천정유는 지난 8월 9일 한국-중동간 문화교류 증진과 중동 정세 및 에너지 안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오는 10월 22일 설립되는 중동문화원(인천 소재)에 설립기금을 인천시와 공동으로 지원하였다.

문화원 설립비는 인천시 산하 인천국제교류센터가 3억원, SK인천정유가 3억원, 신한은행이 1억원씩 분담하고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중동협회가 맡기로 했다.

2007년 10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임시 개원할 중동문화원은 2012년 인천시서구 청라지구내 정구문화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한국-중동간 문화 및 예술 증진 사업, 중동 진출 비즈니스 지원사업, 해외 투자유치 및 민간 외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교류지원 활동을 펼치게 된다.

SK인천정유 행복가득! 미소가득! 페스티벌

SK인천정유는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43일간 하반기 고객감사 사은대잔치를 시행한다. 금번 행사는 'SK인천정유 행복



가득! 미소가득!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2가지 행사를 병행하여 각각 진행한다.

'행복가득! 페스티벌'은 지난 9월 8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으며 SK인천정유에서 주유한 BC카드 고객 대상으로 TOP포인트 주유시 주유금액의 50%를 돌려주고 행사 후 추첨을 통해 하와이 크루즈

여행권 등을 지급했다.

또한, '미소가득! 페스티벌'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하며 SK인천정유에서 주유한 OK캐시백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여행용 세안세트 20만개를 지급하고, 매주 추첨을 통해 네비게이션 및 고급 화장품세트를 제공한다.

SK인천정유는 금번 행사를 통해 국내 최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BC카드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경품을 최종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유통고객의 만족도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LPG 출하 자동화 시스템 구축

SK인천정유는 2007년 2월부터 시작한 LPG 출하장 이전설치 및 출하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난 8월말 완료하고, 9월 중순에 본격적인 출하를 개시하였다.

금번 사업은 공장가동 정상화에 따른 LPG생산량 증대에 대비하고, LPG의 신속한 정량출하 및 인력효율화 그리고, 고객불만 해소를 위해 실시되었다.

SK인천정유는 금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출하시간을 대당 20분내로 단축하고, 출하대별 계근대 신설 및 시스템 자동화로 유동고객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총 투자비는 약 3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LPG출하대 4기 신설, 부취제 자동주입설비 등이 설치되었다.

SK Family Sports Festival 참가



SK인천정유가 지난 9월 8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2회 SK Family Sports Festival에서 야구 우승 및 축구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SK인천정유 야구팀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회사의 저력을 SK관계사에 널리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축구는 지난해 예선탈락의 아픔을 딛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개인별 시상에서 야구 MVP에 김태형 계장, 축구 감독상에 김광수 기술감독, 이광렬 기술감독이 각각 선정되었다.

개인 수상소감에서 수상자들은 "이번 대회 우승과 준우승의 진정한 MVP는 SK가족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혼연일체가 되

어 경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SK인천정유의 모든 구성원이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직영 4호점 '동탄신도시 주유소' 신규오픈

SK인천정유는 10월초순경 동탄 택지개발지구내 동탄신도시주유소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석유제품 판매에 들어간다.

신도시내에 위치한 총면적 1325㎡(401평), 캐노피면적 342㎡(103평)의 대형주유소로써 다양한 유종을 취급할 수 있는 최신식 6복식 주유기를 설치하여 향후에 고급휘발유와 고성능경유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유종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또한,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클린주유소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환경친화적인 주유소로 이중배관, 격실있는 이중탱크 등 토양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경정비 전문점인 Speed-mate(3베이)와 하부세차가 가능한 최첨단 티널식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 대 청결운동' 실시



SK인천정유 인천공장은 지난 9월 10일(월) 인천공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 대 청결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아침출근시간에 맞춰 인천공장 정문에서 울도 삼거리까지 대로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행사로 인천공장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되었다.

SK인천정유는 '국토 대 청결운동' 매월 1회(매월 둘째주 월요일) 정기적 실시로 구성원들의 화합과 기업시민으로서 충실한 역할 및 지역주민에 대한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천리, 전 한전사장 한준호씨 부회장으로 영입



국내 최대 도시가스 공급기업인 (주)삼천리(회장 이만득)가 지난 9월 3일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역임한 한준호 부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한준호 삼천리 부회장은 1978년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장을 시작으로 석유가스국장, 자원정책 실장,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지냈고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30년 이상을 에너지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정통 '에너지맨'이다.

특히 한전사장 재임시절 해외 사업의 적극적 진출과 인사제도 개혁, 윤리경영 정착,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천리는 이번 영입을 통해 한준호 부회장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오랜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살려 기존의 도시가스, 집단 에너지, 열병합발전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을 통해 종합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 가봉 대통령 면담



한국석유공사 황두열 사장은 지난 8월 10일 방한 중인 봉고 온딤바 (Ei Hadj Omar BONGO-ONDIMBA) 가봉공화국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석유개발 및 인적교류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저녁 6시부터

약 3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황두열 사장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아울러 국영석유기업인 석유공사의 활발한 해외석유개발 전략 및 비축사업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석유 등 자원개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석유개발 분야의 협력 강화 및 인적, 물적 교류 증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골든오일, 물적분할 통해 자원개발 집중

아르헨티나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골든오일(대표 구희철)이 엔터테인먼트 및 IT사업부문 물적분할을 통해 자원개발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골든오일은 지난 8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등 비관련 사업분야의 자회사 물적분할을 단행하고 자원개발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 올해를 2010년 일일 3만 배럴 생산 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코스닥 상장법인인 구 시나비전과 합병한 골든오일은 시나비전의 기존 사업부문에서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고 사업영역 및 성격이 상이한 사업분야를 분리, 각 사업분야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적분할을 진행한 것이다.

구희철 대표는 "구 시나비전 사업분야의 물적분할과 함께 부실자산의 매각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와 함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써의 이미지 구축, 회사의 모든 역량을 주력사업인 자원개발사업에 집중해 비전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